

#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 분석

## Analysis of Leisure Industries in Ulsan Metropolitan City

최성훈\*, 송강영\*\*  
울산대학교\*, 동서대학교\*\*

Sung-Hun Choi(sunghun@ulsan.ac.kr)\*, Kang-Young Song(sky-soccer@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의 규모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2008여가백서의 여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여가산업을 크게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였고,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사이트(<http://www.kosis.kr>)의 9차 개정(2007년 기준)을 이용하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의 성별, 매출액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과 관련된 사업체수 10,292개, 종사자수 23,357명, 종사자의 남성 8,699명, 여성 14,631명 이었고, 매출액 규모는 1조 1,675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용품산업의 사업체수는 1,041개, 종사자수는 1,867명, 매출액은 1,227억 원이었고, 여가공간산업의 사업체수는 6,534개, 종사자수는 15,752명, 매출액은 6,940억 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여가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는 2,717, 종사자수는 5,738명, 매출액은 3,507억 원이었다. 울산의 여가산업 중에서 여가용품산업은 여가용품제조업의 비중이 거의 없고, 여가공간산업에서 유흥업소의 비중이 높으며, 여가서비스산업은 여가교육서비스업이 많았다.

■ 중심어 : | 여가산업 | 여가용품산업 | 여가공간산업 | 여가서비스산업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d leisure industries of Ulsan Metropolitan city. Leisure industries were categorized leisure goods industries, leisure space industries, and leisure service industries according to 'Leisure White Paper' was offere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analyzed the number of businesses, workers, and sales by KOSIS(<http://www.kosis.kr>),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s a results, the number of business were 10,292, workers were 23,357 person, and sales were 1.1675 trillion won. More specifically, the number of business were 1,041, workers 1,867 person, and sales were 122.7 billion won in the number of Leisure goods industries. The number of business were 6,534, workers 15,752 person, and sales were 694 billion won in the number of Leisure space industries. Lastly, The number of business were 2,717, workers 5,783 person, sales were 350.7 billion won in the number of Leisure service industries. Especially, Leisure goods industries were poor, liquor related business were too many in leisure space industries, and leisure education service industries were large.

■ keyword : | Leisure Industry | Leisure Goods Industry | Leisure Spaces Industry | Leisure Services Industry |

## 1. 서론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아직까지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에 대한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행연구는 없고, 지역 간 여가산업의 규모를 비교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여가백서[1]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가산업의 규모가 71조 3,457억 원, 레저백서[2]에서는 31조 57억 원 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여가산업(leisure industry)이란 여가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형,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제조, 판매, 그리고 여가활동의 지도 등을 행하는 제 종류의 산업을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다[3]. 인터넷 상의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도 레저산업은 여가시간에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시설 용구의 제공이나 제조, 판매, 여가활동의 지도 등을 행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이러한 여가산업의 정의는 여가산업을 화폐의 소비를 동반하는 여가활동에 대응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여가백서[1]의 정의와 여가산업을 여가공급 요소의 일부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5]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여가활동의 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여가교육(leisure education)을 여가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산업의 구분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수정되었다. 2006년에 출간된 여가백서[6]에서는 여가산업을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취미/오락, 휴식, 기타 사회활동으로 구분하였고, 2007년에 출간된 여가백서[7]에서는 문화예술관광, 문화예술참여, 스포츠참여, 관광, 휴식, 사회활동, 취미오락으로 분류 하였다. 작년에 발간된 여가백서[1]에서는 여가산업을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가산업의 영역과 개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체 여가산업의 규모가 과추정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1].

여가산업이 성장하게 된 원인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의 증대, 주5일근무제,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

로 여가에 대한 수요(need)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여가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가산업의 규모 71조 3,457억 원, 여가산업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 132조 6,999억 원, 고용유발 효과 93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여가수요에 맞는 여가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여가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개발의 측면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로써 꾸준한 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8]. 울산광역시는 빠른 인구증가와 함께 제조업 근로자들이 많아서 다른 도시와 다른 특징이 있으며, 여가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도시이다. 하지만, 여가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여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가는 심리적 이익, 생리적 이익, 사회/문화적 이익, 경제적 이익, 환경적 이익(benefits)을 준다. 여가의 경제적 이익은 건강 비용(health costs)을 줄이고, 이직을 감소시키며, 지역과 나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9]. 또한 여가산업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0]. 물론, 울산광역시도 여가산업의 경제성과 공익성 때문에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그동안 여가학(leisure studies) 관련 분야에서는 여가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광역권 또는 각 지방 단위의 여가산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선행 연구에서도 직접적인 여가산업에 대한 연구라고 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러한 여가산업에 대한 연구의 부진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여가학자는 없지만, 그동안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가행동(leisure behavior) 이론과 방법론, 인문주의적 학문 전통에 치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연구자들의 여가에 대한 경제적인 안목이나 경험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가산업을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게임산업 등으로 나뉘어져, 각 영역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을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의 성별, 매출액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여가정책이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II. 연구 방법

### 1. 여가산업 분석을 위한 분류 체계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은 2008여가백서의 여가산업 분류체계에 따라서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여가용품산업은 스포츠 및 아웃도어여가 용품업, 취미여가 용품업, 오락여가 용품업 등이었다. 여가공간산업은 여가숙박업, 캠핑링여가 시설업, 스포츠경기관람 여가시설업, 문화관람여가 시설업, 운동 및 건강여가 시설업, 여행 및 체형여가 시설업, 오락여가 시설업, 기타 유흥여가 시설업이었다. 여가서비스산업은 여가콘텐츠제공업, 여가용품임대업, 여가정보제공서비스업, 여가방송서비스업, 기타 여가서비스업, 여가교육업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와 2008여가백서와 첫 번째 차이점은 모터사이클제조업, 자전거제조업, RV(다목적용승용차)제조업이 누락된 부분이다.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는 모터사이클제조업과 자전거제조업이 없고, RV(다목적용승용차)제조업의 규모 파악도 어렵고, 여가용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

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2008여가백서와 차이점은 여가교육업을 여가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킨 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문화관광연구원[11]에서 여가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제공업, 또는 통신과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 서비스나 교육서비스 및 여행사 등 여가활동을 위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여가교육업을 여가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켰기 때문이었다.

### 2. 여가산업 분석을 위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분석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 관련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12]의 주제별 통계를 이용하였다. 주제별 통계는 인구·가구, 고용·노동·임금, 물가, 행정 등 17개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서비스조사’에서 산업편 9차 개정(2007년 기준)을 조회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울산광역시의 여가용품 산업

울산광역시의 여가용품산업과 관련된 운동/경기용품 제조업체수 4개가 있었다. 여가용품산업의 사업체수는 1,041개, 종사자수는 1,867명(남성, 825명; 여성, 1,042명), 매출액은 1,228억 원이었다. 특히, 서적/문구용품

표 1. 울산광역시의 여가용품산업

세분류	산업분류명칭	사업체수	종사자수	남성	여성	매출액 (백만원)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업	스포츠용품 소매업	205	418	212	206	48,868
	운동/경기용구제조업	4	119	96	23	142
취미여가 용품업	음반 및 비디오품 소매업	15	20	6	14	580
	서적/문구용품 소매업	629	1,031	379	652	59,810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79	112	35	77	2,948
오락여가 용품업	게임용구/인형/장난감 소매업	109	167	97	70	10,500
소계		1,041	1,867	825	1,042	122,848

소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그리고 매출액 등이 가장 높았고 운동/경기용품제조업이 가장 낮았다. 울산광역시 의 여가용품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살펴보면, 스포츠 및 아웃도어 용품업은 488억 원, 취미여가용품업은 633억 원, 오락여가 용품업은 105억 원이었다. 울산광역시의 여가용품산업은 전체 여가용품산업의 1%에 해당된다.

전체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의 규모가 1조 2,615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울산광역시의 스포츠용품업은 전체스포츠용품산업의 4%에 해당된다. 울산광역시의 여가용품산업이 이렇게 낮게 측정된 원인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자전거 제조업, MP3 Player 제조업 등이 없기 때문이다. 또, RV(다목적승용차) 제조업은 정확히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한 산업이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가용품산업의 분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울산광역시의 여가공간산업

울산광역시의 여가공간산업의 사업체수는 4,739개, 종사자수는 11,752명, 매출액은 6,940억 원이었고, 남성(4,529명)이 여성(7,226명) 보다 적었다. 여가숙박업 1,074억 원, 운동/건강여가시설업 1,110억 원, 오락여가

표 2. 울산광역시의 여가공간산업

세분류	사업분류명칭	사업체수	종사자수	남성	여성	매출액 (백만원)
여가숙박업	호텔업	8	493	262	231	107,483
	여관업	724	1,449	442	1,00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6	51	29	22	
	휴양콘도운영업	2	11	6	5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65	113	49	64	
캠핑링 시설업	도박장 운영업	53	82	39	43	3,638
스포츠경기 관련여가 시설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2	15	12	3	3,397
	실외경기장 운영업	3	52	45	7	30,640
문화/관람 여가 시설업	영화관 운영업	4	155	67	88	24,833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33	63	33	30	40,165
	공연시설 운영업	5	275	126	149	
운동/ 건강여가 시설업	골프장 운영업	4	289	91	198	111,029
	골프연습장 운영업	136	356	204	152	
	수영장 운영업	17	6	3	3	
	볼링장 운영업	14	57	33	24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30	190	104	86	
	그 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34	47	29	18	
	종합운동시설 운영업	11	212	96	116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4	157	93	64	
육탕업	230	950	422	528		
여행/ 체험여가 시설업	박물관 운영업	5	30	14	16	1,032
	사적지 운영업	1	4	4	0	851
	식물원/동물원/자연공원 운영업	4	32	23	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	12	8	4	226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	2	84	58	26	5,623
오락여가 시설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53	94	55	39	102,810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398	983	604	379	
	노래방 운영업	1,281	2,126	560	1,566	
	당구장 운영업	243	368	230	138	
	기원 운영업	32	36	34	2	
	기타 오락장 운영업	27	56	17	39	
	기타 분류안 된 오락관련산업	9	37	11	26	
기타 유흥여가 시설업	일반 유흥주점업	858	2,867	726	2,144	262,363
	무도 유흥주점업	36	483	299	184	
	간이(기타) 주점업	2,072	3,465	708	2,757	
	무도장 운영업	20	22	13	9	
소계		6,534	15,722	5,549	10,176	694,090

시설업 1,028억 원, 기타유희시설업 2,623억 원으로 높았다. 또, 여가공간산업에서 여관업, 골프연습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업, 욕탕업, 컴퓨터게임방운영업, 노래방 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일반유희주점운영업, 간이주점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오락여가시설업과 유희여가시설업의 비중이 스포경기관람여가시설업, 문화관람여가시설업, 운동/건강여가시설업, 그리고 여행체험여가시설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액만 비교하면, 울산광역시의 여가공간산업은 전체 여가공간산업(36조 5,365억)의 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08여가백서에는 여가숙박업은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관광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표 2]와 같이 호텔업, 여관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등으로 분류표를 수정하였다.

### 3. 울산광역시의 여가서비스산업

울산광역시의 여가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는 2,717개, 종사자수는 5,738명, 매출액은 3,507억 원이었고, 남성(2,325명)이 여성(3,413명) 보다 적었다. 매출액만 따져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여가서비스산업의 규모는 12조 9,144억 원이므로 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사업체수에서는 예술학원업이 1,138개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레크리에이션교육업 598개, 점술/유사서비스업 426개, 피부미용업 170개, 마사지업 129개 순이었다. 종사자수에서는 예술학원업이 1,8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레크리에이션교육업 1,052명, 텔레비전 방송업 527명, 점술/유사서비스업 434명, 국외여행사업 328명, 마사지업 322명, 피부미용업 312명 순서로 많았으며, 종사자수가 적은 사업은 음반/비디오물 임대업, 경기/여가용품 임대업, 국내여행업, 프로그램공급업 등 이었다.

매출액은 여가방송서비스업 1,26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여가서비스업 821억 원, 그리고 여가교육서비스업 6,106억 원이었다. 참고로, 구체적으로 매출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울산광역시의 여가서비스산업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서적임대업과 경기/여가용품임대업, 여행업, 방송업, 피부미용업과 마사지업 등 이었고, 여가교육서비스업은 2008여가백서의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는 추가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 1.1 여가산업 분류의 타당성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 3. 울산광역시 여가서비스업

세분류	사업분류명칭	사업체수	종사자수	남성	여성	매출액(백만원)
여가콘텐츠 제공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34	403	321	82	44,780
여가용품 임대업	음반/비디오물 임대업	9	12	3	9	13,939
	서적 임대업	92	152	35	117	
	경기/여가용품 임대업	5	13	5	8	
여가정보 제공서비스업	일반/국외여행사업	79	328	147	181	20,222
	국내여행사업	6	18	3	15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14	62	20	42	
여가방송 서비스업	라디오 방송업	2	22	18	4	126,756
	텔레비전 방송업	9	527	429	98	
	유선 방송업	5	236	174	62	
	프로그램 공급업	1	2	1	1	
기타 여가서비스업	피부미용업	170	312	11	301	61,279
	마사지업	129	322	74	248	
	점술/유사서비스업	426	434	142	292	
여가교육서비스업	스포츠/레크리에이션교육업	598	1,052	708	344	22,995
	예술학원업	1,138	1,843	234	1,609	38,078
소계		2,717	5,738	2,325	3,413	350,789

무엇보다도 여가산업의 분류 체계가 타당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가산업의 분류는 2008여가백서의 분류 방법처럼, 여가산업을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여가 용품(goods) 또는 준비물이 갖추어져야 하고, 여가활동에 알맞은 여가 공간(space)이 있어야 하며, 기술 습득이나 즐거움, 편안함을 위해서 여가 서비스(service)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여가백서의 구분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여가용품산업에서 RV(다용도승용차)제조업은 엄밀히 말하자면, 여가생활보다 일상생활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매출액 또한 1조 7,573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여가용품산업의 규모가 과추정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가산업에 제외되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학자들마다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여가서비스산업 부분에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교육업이나 예술학원업 등은 여가서비스산업에 포함되어야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는 많은 문화, 스포츠, 관광 행사가 개최되는데, 이러한 이벤트 사업들도 여가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울산발전연구보고서[13]에 의하면, 울산에서 지난해 열렸던 ‘울산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시설투자 55억 원, 대회운영비 25억 원이 지출되었고, 생산유발효과 235.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3.8억 원, 취업유발효과 347.8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였다. 물론, 여가용품산업과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과 겹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러한 여가이벤트 개최가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울산의 홍보와 울산 시민의 자긍심 향상 등 무형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방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기 때문이다.

## 1.2 여가산업 규모 산정의 정확성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류 항목도 정확해서 여가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이 정확해야하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통계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제시하는 항목이나 수치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락된 항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여가산업의 규모 산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과 관련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종합스포츠센터,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같은 종합회관,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 등이 울산광역시의 여가공간산업이나 여가서비스산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통계자료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1.3 울산광역시의 여가용품산업의 문제점

울산광역시의 스포츠용품산업의 규모는 1,228억 원이었다. 통계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보면, 울산광역시의 여가용품산업의 특징은 운동/경기제조업과 같은 산업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이 상당히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울산광역시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중대형 기간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여가산업과 관련된 여가관련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울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기간산업과 여가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 1.4 울산광역시의 여가공간산업의 문제점

울산광역시의 여가공간산업의 규모는 6,940억 원이었다. 울산광역시의 여가공간산업의 특징은 여관업, 골프연습장운영업, 옥탕업, 컴퓨터게임방운영업, 노래방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일반유희주점운영업, 간이주점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러한 점은 김문겸(2006)의 연구[14]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오락여가시설업과 유희여가시설업의 비중이 스포경기관람여가시설업, 문화관람여가시설업, 운동/건강여가시설업, 여행체험여가시설업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점들은 울산광역시의 여가문화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하고, 스포경기관람, 문화관람, 운동/건강, 여행체험 등의 여가시설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의 시민들은 문화관람이나 여행체험 등의 여가소비를 위해서 가까운 경주나 부산에서 많은 여가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울산광역시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체들이 있고,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천연잔디축구장과 인조잔디축구장, 빙상장, 테니스장,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공원 등을 거의 무료로 가깝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국가통계자료에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근로자들에게는 복지 향상에 기여하지만, 반대로 울산광역시에 있는 민간자본 여가공간산업들이 성장하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여가공간산업의 문제점은 시민들의 여가인식이나 여가태도에도 영향을 준다.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여가시설들이 거의 무상에 가깝게 운영되기 때문에 돈이 드는 여가활동에 조그만 투자도 꺼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울산현대호랑이 프로축구단의 홈경기를 보면, ‘공짜 표’가 성행하고, 관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서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고[15], 값이 비싼 음악 연주회나 연극 공연이 잇달아 실패하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울산광역시의 여가문화 산업은 울산시가 보조 해주지 않으면 자생하기 힘들 정도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 1.5 울산광역시의 여가서비스산업의 문제점

울산광역시의 여가서비스산업의 매출액은 3,507억 원이었다. 울산광역시의 여가방송서비스업에 비해서 관광업과 관련된 여가정보제공서비스업이나 스포츠관련된 여가교육서비스업은 규모가 작다. 또한 스포츠 분야와 관광 분야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가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약하고,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다. KBS 울산방송[16]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가장 많이 일하는 도시이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으며,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도시이지만, 같은 해 1인당 지역내 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울산은 소비가 생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부자도시라는 지표상의 순위는 현실성이 없고, 울산에서 번 돈이 다른 지역에서 주로 쓰이고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활발한 소비가 울산광역시에서 이루어지도록 여가서비스산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첫째,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의 규모는 1조 1,675억 원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지난 해 세입 1조 5,868억 원과 비슷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용품산업이 1,227억 원이었고, 여가공간산업이 6,940억 원이었으며, 여가서비스산업이 3,507억 원이었다. 울산광역시의 여가관련 사업체수는 10,292개 이었고, 종사자수는 23,357명 이었으며, 여성(14,658명)이 남성(8,699명)보다 많게 나타났다.

둘째,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은 여가용품제조업이 부족하고, 여가공간산업에서 유흥주점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여가공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가인식이나 여가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 2. 제언

첫째, 2008여가백서의 여가산업 분류 방법은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였는데, 통계청의 광·공업, 도·소매업·서비스업 등의 분류방법과 다르지만, 여가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일 수 있다. 하지만, 여가산업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RV(다용도승차) 제조업은 여가용품산업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고, 스포츠/레크리에이션교육업이나 예술활동교육업 등은 여가서비스업에 포함시켜야 하며, 각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이벤트를 여가서비스산업에 산정해야 할 것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실제적으로 반영하여 여가산업 분류의 각 항목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보다

정확한 여가산업 규모가 산출될 것이다.

둘째,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여가용품산업에서 제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의 기간산업의 기술력을 여가산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공간산업에서 유흥주점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광업 등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여가공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여가 태도나 여가인식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울산시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여가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가서비스산업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여가교육서비스업을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여가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울산광역시를 '산업도시'라고 알고 있지만, 울산광역시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 훌륭한 체육시설과 여가시설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태화강과 강동지구를 중심으로 여가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아름다운 여가자원과 여가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울산발전연구원 등의 기관별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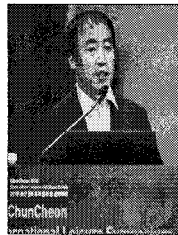
[1] 문화체육관광부, 2008여가백서, 2009.  
 [2]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레저백서, 2007.  
 [3] 지양자, 여가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인의 놀이 의식과 여가문화, 여가문화연구회, pp.313-336, 1996.  
 [4] <http://100.naver.com>  
 [5] 김광득, 여가와 현대사회. 백산출판사, 2005.  
 [6] 문화관광부, 여가백서, 2006.  
 [7] 문화관광부, 여가백서, 2007.  
 [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승격10주년 기념백서, 2006.

[9] B. L. Driver and D. H. Burns, *Concepts and uses of benefits approach to leisure*, In E. L. Jackson and T. L. Burton (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pp. 349-369).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1999.  
 [10] 2010월드레저총회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춘천국제여가심포지엄, 춘천시, 2009.  
 [11] 문화관광연구원, 여가 그리고 정책, 대왕출판사, 2008.  
 [12] <http://www.kossis.kr>  
 [13] 문상식, 울산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울산발전연구원, 2008.  
 [14] 김문겸, 현대 울산인의 삶과 문화: 울산인의 일과 여가, pp.177-212, 울산발전연구원부설 울산학 연구센터. 2006.  
 [15] 시사기획 인사이드, 울산현대 시민구단 가능한가?, 2009년 4월 26일 방송.  
 [16] KBS 울산방송 뉴스9, 울산경제 '밀지는 장사', 2009년 8월 3일 아침방송.

**저자 소개**

최성훈(Sung-hun Choi)

정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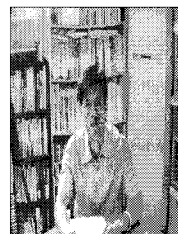


-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울산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관심분야> : 여가이론, 여가산업

송강영(Kang-Young Song)

宗新회원



- 1999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레포츠과학부 교수

<관심분야> : 여가 및 레저스포츠